

[아마존] 첫 파운드화 채권 발행에 120 억 파운드 수요 - CapEx 조달 채널 다변화

26.09.09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핵심 요약

- 아마존 첫 파운드화 채권에 120 억 파운드 수요 몰려
- CapEx 가이드선 2200 억 달러 상향과 조달 다변화 맞물려
- 이자부담 추이·자금 집행 효율이 다음 관찰 포인트

아마존이 처음으로 파운드화(스털링) 표시 채권 발행에 나섰다. 주관사 메모에 따르면 수요는 120 억 파운드를 넘어섰다. 구체적인 발행 규모나 금리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, 수요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.

이번 발행은 지난 7 월 진행한 242.5 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(금리 4.60~6.25%)에 이은 것으로, 아마존의 자금 조달이 달러 채권 시장을 넘어 파운드화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 최근 실적에서 확인됐듯 아마존은 26 회계연도 현금 설비투자(CapEx) 가이드선을 약 2000 억 달러에서 약 2200 억 달러로 상향했고, 그 배경으로 메모리 원가 상승을 꼽았다.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려면 조달 채널을 넓힐 필요가 커졌고, 이번 파운드화 채권은 그 흐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.

통화 다변화 자체는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. 파운드화 표시 자산·부채가 있는 사업 부문에는 자연 헤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, 달러 채권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. 다만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,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가 4%대 중반에 머무는 환경에서 조달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비용 증가 압력은 계속 지켜볼 부분이다.

수요가 몰렸다는 사실은 채권시장이 아마존 신용도를 여전히 우호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.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. 관건은 이번 조달 자금이 AWS 데이터센터 등 확장 투자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는지, 그리고 다음 분기 잉여현금흐름 흐름이 개선되는지 여부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637.96	716.92	828.69	948.42	1,097.36
↘ 증가율	10.99%	12.38%	15.59%	14.45%	15.70%
매출총이익	311.67	360.51	426.09	498.10	580.52
↘ 마진	48.85%	50.29%	51.42%	52.52%	52.90%
EBITDA	144.16	169.84	216.45	282.46	365.57
↘ 마진	22.60%	23.69%	26.12%	29.78%	33.31%
영업이익 (EBIT)	68.59	79.97	109.80	140.27	182.02
↘ 마진	10.75%	11.16%	13.25%	14.79%	16.59%
순이익	59.25	77.67	138.77	116.58	152.61
↘ 마진	9.29%	10.83%	16.75%	12.29%	13.91%
EPS	5.53	7.17	12.86	10.59	13.98
↘ 증가율	90.69%	29.66%	79.36%	-17.69%	32.10%
잉여현금흐름 (FCF)	32.88	7.70	-21.54	-26.25	28.27
P/E	39.7x	32.2x	20.0x	24.3x	18.4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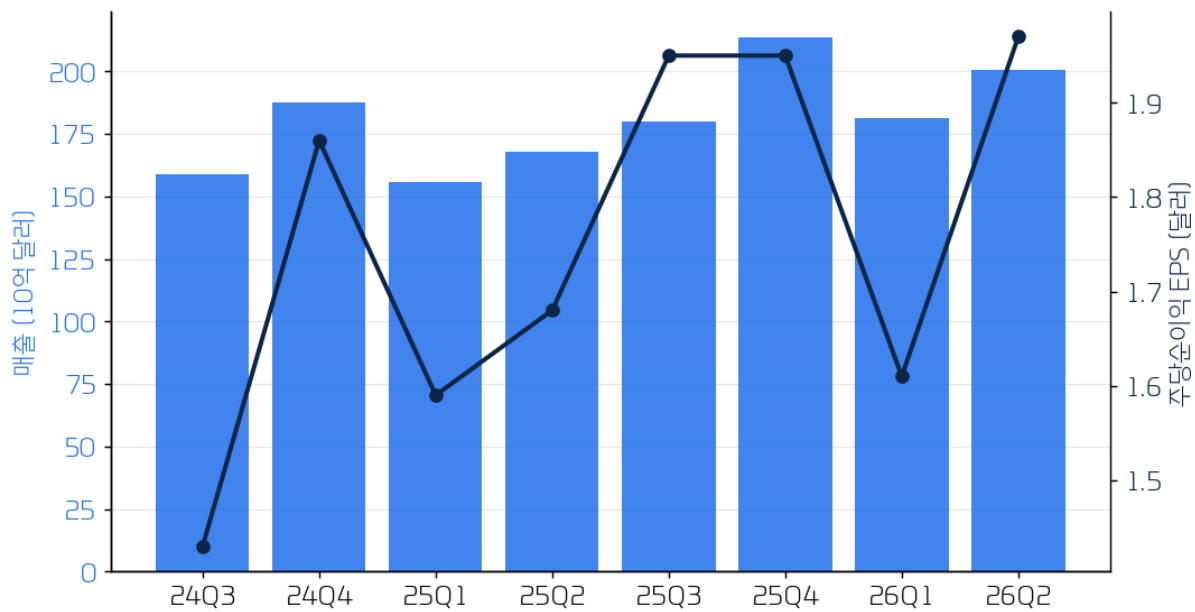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AMZN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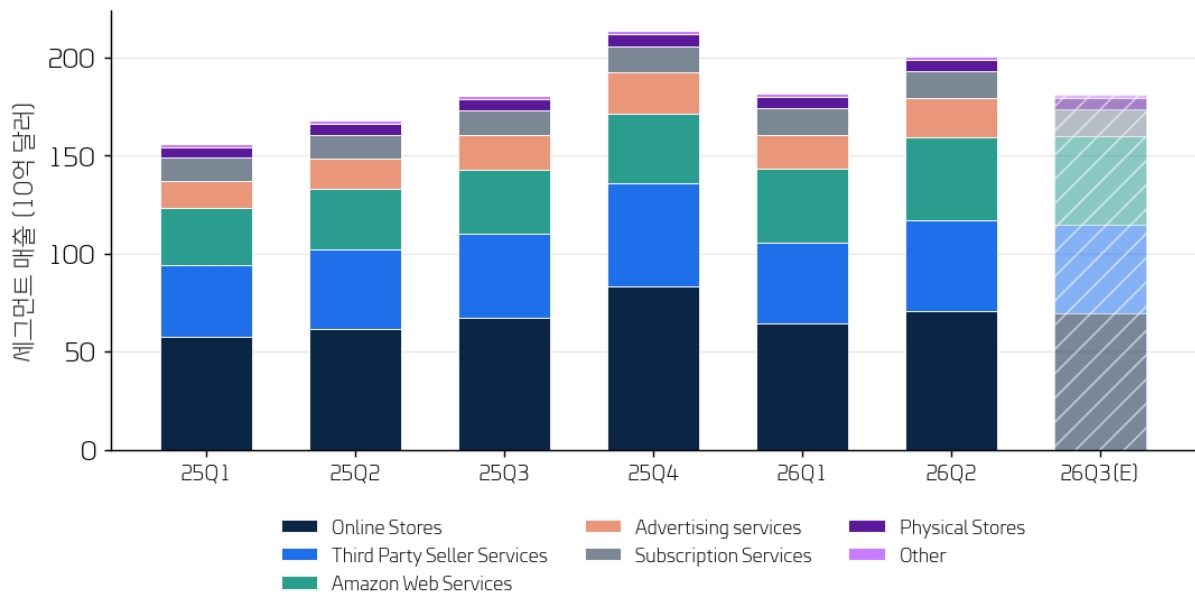


AMZN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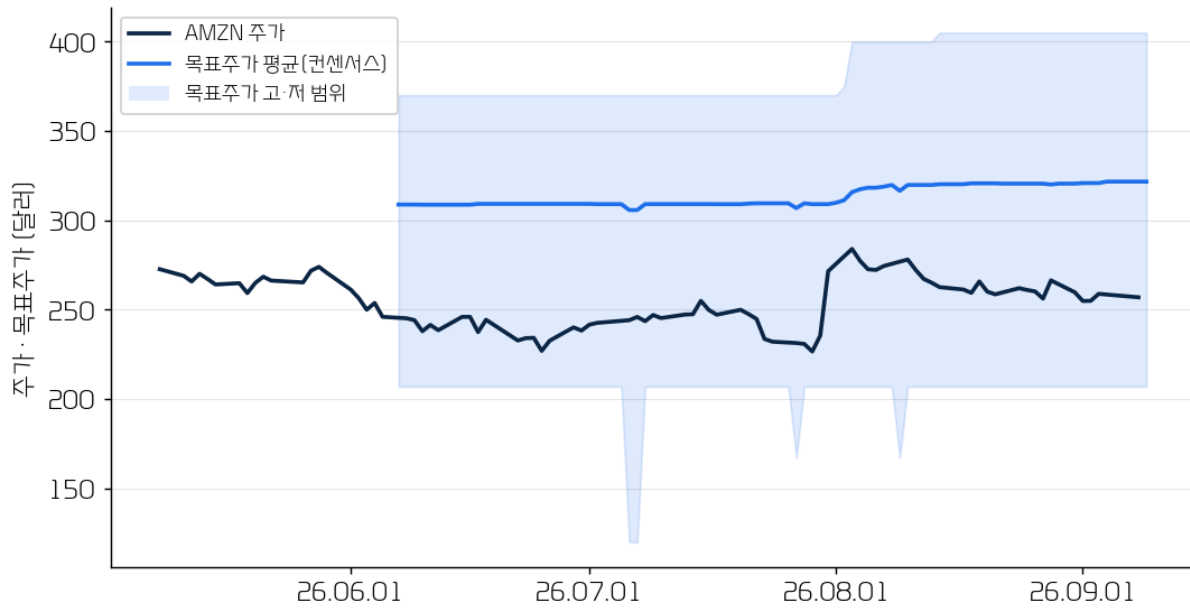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AMZN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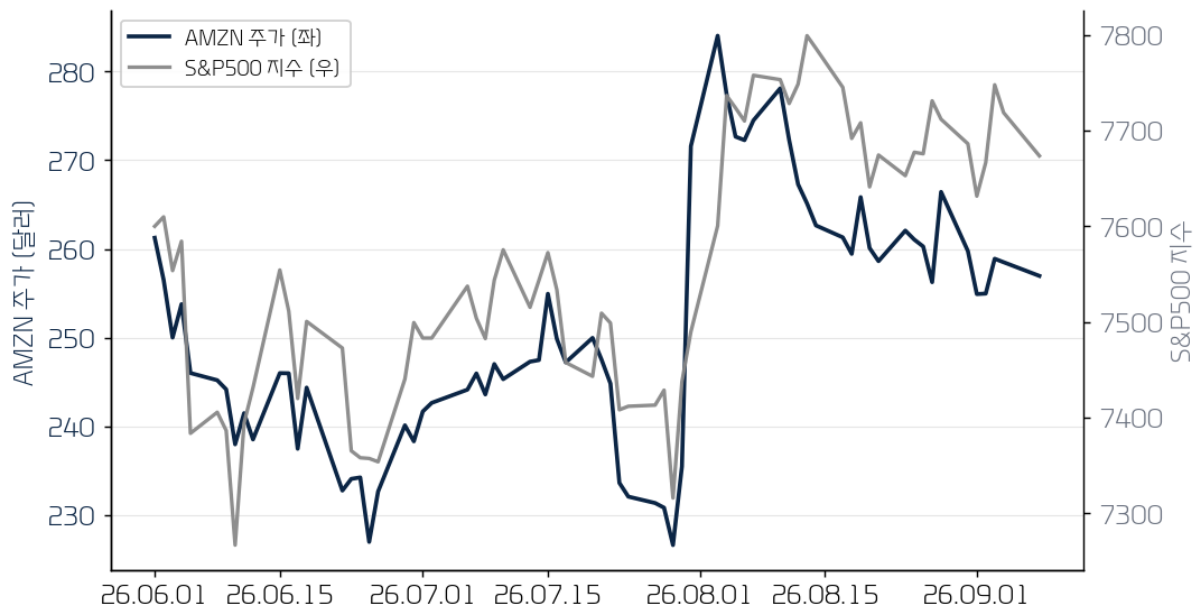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AMZN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AMZN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